
세금을 지켜라!



김찬곤 글 | 박재현 그림 | 115쪽

- 5학년 1학기 사회 4.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 6학년 2학기 사회 1.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우리 어린이들은 세금을 잘 모른다. 또 관심이 거의 없다. 특별히 세금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 어린이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더구나 세금은 어른들의 문제이고, 어린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 물론 어른들도 세금을 잘 모른다. 자신이 한 해에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어른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책은 복잡한 세금을 아주 쉽게 정리해 놓았다. 아마 어린이들은 이 책을 읽고 깜짝 놀랄 것이다. 자신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날마다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말이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날마다 19,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젓먹이 아기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이만큼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한다. 대체 갓난아기들과 어린이들은 어떻게 세금을 낸다는 것일까. 이 책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복잡한 세금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학습 목표)

2017년 우리나라 정부의 총 예산은 4조 7천억 원이다. 이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다. 한 국조폐공사에서 새로 찍은 돈도 아니다. 모두 다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한다. 우리는 먼저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거두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세금의 종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세는 14가지가 있고, 지방세는 11가지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25가지 세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 수 있을까? 아니다. 이와 더불어 갖가지 세금이 더 있다. 갓난아기가 내는 세금이 있고, 우리 어린이들이 날마다 내는 세금이 있다. 또 노숙인 최씨 할아버지가 내는 세금도 있다. 이런 세금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또 정부는 이 세금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자. 또 세금이 어떻게 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세금 해방의 날’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세금 해방의 날은 언제일까?
- 한 해 정부 예산은 어떻게 짤까?
- 대기업 김회장과 노숙인 최씨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었다. 둘이 내는 세금은 얼마일까?
-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평등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죄악세와 비만세가 무슨 세금인지 알아보자.
- 북한은 과연 세금이 없을까?
- 우리나라는 많은 곳에서 세금이 내고 있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독전 활동)

다음 아래 사례를 같이 읽고 토론해 보자.

소 방귀세, 소가 방귀를 똥 때마다 세금을 내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지구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환경세를 걷고 있다. 환경세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이나 상품에 물리는 세금이다. 우리나라 세금 가운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바로 이런 세금이다.

몇 해 전부터 세계 낙농 국가에서는 ‘소 방귀세’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유럽의 낙농 국가 에스토니아에서는 소를 키우는 농가에게 ‘소 방귀세’를 물리고 있다. 소나 염소 같은 반추동물은 풀이나 사료를 먹으면, 반추위에서 소화할 때 탄소와 수소가 나온다. 탄소와 수소가 결합하여 메탄이 되는데, 이 메탄이 방귀와 트림으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이나 개나 돼지도 방귀를 똥고 트림을 한다. 그런데 소는 그 양이 엄청나다.

전문가들은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40퍼센트가 축산업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소에게서 나오는 온실가스 양은 세계 온실가스 양에서 18퍼센트나 차지한다. 이는 세계 교통수단인 자동차가 내뿜는 온실가스 13.5퍼센트보다 많다.

덴마크 정부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소 한 마리가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4톤쯤 되는데, 이는 자동차 한 대가 내뿜는 온실가스 2.7톤보다 1.5배나 많다. 그런데 소고기 소비량이 자꾸 늘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키우는 소도 늘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세계 낙농 국가 뉴질랜드, 호주, 덴마크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덴마크는 축산업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 방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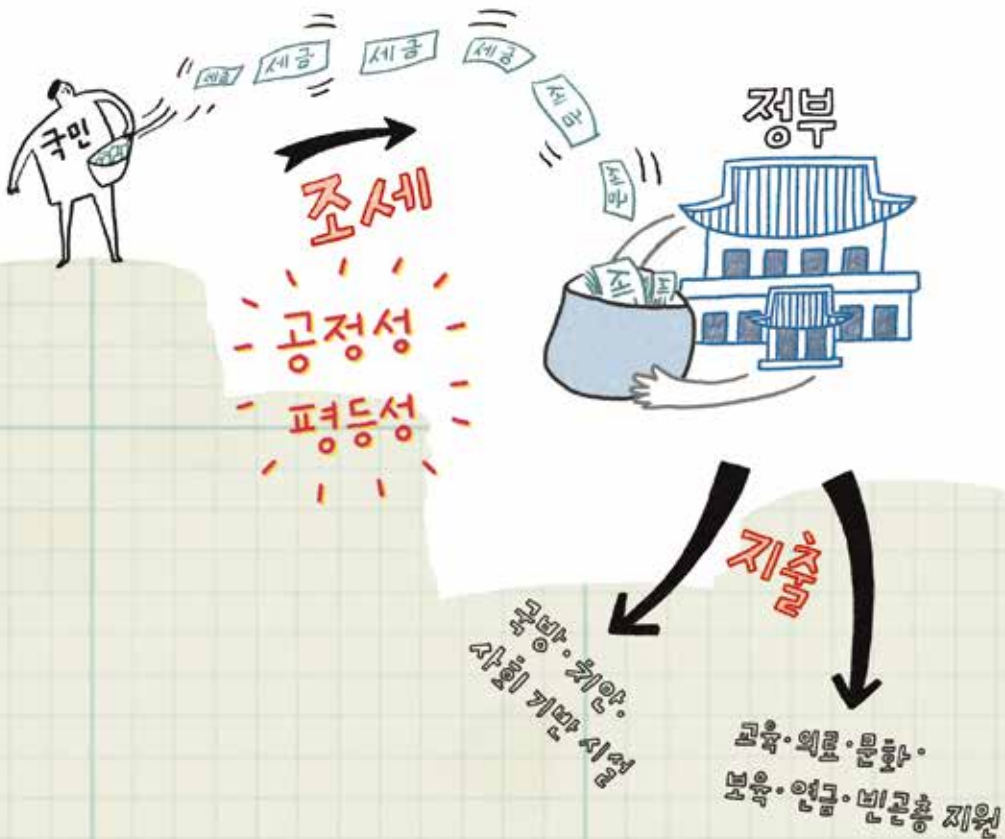
- ➔ 선생님은 먼저 두세 학생에게 이 사례를 읽고 난 느낌을 물어본다.
- ➔ 그런 다음 이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문제는 없는지 묻는다. 합당하다면 왜 그러한지, 문제가 있다면 왜 그러한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한다.
- ➔ 선생님은 다시 전체 학생에게 묻는다.
- ➔ “소 방귀세를 물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드세요.”

➔ “소방귀세를 물리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드세요.”

➔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생각을 살펴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근거이다. 이 근거가 뭔지 잘 들어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어 간다.

➔ 소방귀세가 합당하다, 불합리하다가 중심이 아니라 그에 대한 근거를 대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이런 세금이 메탄가스 양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세금을 축산농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따져 보는 것이다.

➔ 만약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이 세금을 매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토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독후 활동)

비만세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도 비만세를 새로 도입하려 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비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의 건강보험 부담이 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개인 또한 비만으로 드는 돈이 자꾸 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그 대안으로 비만세를 새로 도입하려 하는 것이다.

➔ 비만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 덴마크의 사례를 정리해 발표해 보자.

➔ 덴마크 말고도 미국 캘리포니아, 핀란드, 헝가리,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멕시코에서 비만세 또는 비만세와 비슷한 세금을 매겨 국민의 비만을 줄이려 했다. 이런 나라의 비만세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정부가 주장한 만큼 성공을 했는지, 지금도 이 비만세를 걷고 있는지 알아보자.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서를 살펴보자.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을 한 다음, 계산서를 놓고 하나하나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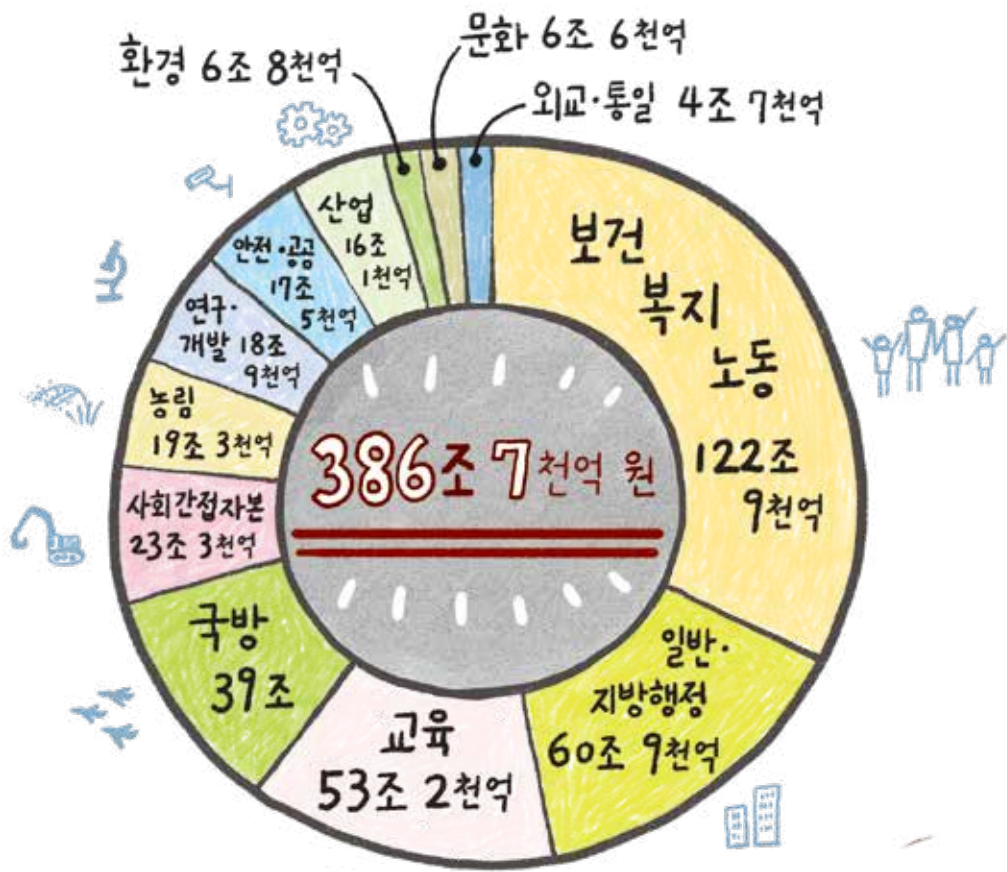
➔ 부가세 과세 물품가액(과세물품가액, 과세 합계)가 무엇인지 부모님께 물어보자.

➔ 부가세(세액, 물품가격에 포함된 부가세, 상품에 포함된 부가세)가 뭔지 부모님께 물어보자.

➔ 면세 물품가액(부가세 면세 물품가액)이 뭔지 부모님께 물어보자.

➔ 계산서를 보면 부가세가 안 붙는 물품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책 70쪽 “세금이 없는 상품은 없다”를 보면 알 수 있다.

2016년 정부 예산



1980년 정부 예산
5조 8천억 원